

## 함께-있음

작가 김지혜의 작업은 작가와 작품, 관객 사이에 관계를 수립하는 일에 관여한다. 그러나 그녀의 작업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환대로 시작해 대화와 소통으로 이어지는, 즉 관계미학이 이상화하는 그 “관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된다. 설치 작업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People Who Stare)>(2022)이나 <적당한 거리(Proper Distance)>(2022)는 센서를 이용해 관객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도록 고안되었고, 더 나아가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He Turned His Head and Glanced at Me)>(2022)의 화면 속 인물들은 관객의 시선은 피하면서 그들을 훑어본다. 작가의 작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익명의 군중 드로잉과 최근 작업 <흐름(Stream)>(2024), <흐름\_아바타와 함께 걷기(Stream\_walk with avatar)>(2025)는 익명의 타자들 속에 무심하게 관객을 위치시킨다. 이러한 작품들 앞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계 중심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소통이나 관계 맺기의 실패를 경험한다. 대신 그들은 작품 속 타자들에 의해 응시되고 외면 당할 수 있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주체가 되어 관계에 대해 재사유하기를 제안받는다.

타자들 사이에 내던져진 건 관객뿐만이 아니다. 작가 자신도 항상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관찰하고 관찰 당하며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고자 노력한다. 초기 드로잉이나 <흐름>(2024)의 제작을 위해 작가는 익명의 군중들을 관찰할 수 있는 광장이나 역, 쇼핑몰 등에서 오랜 시간 그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항상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데, 작가에게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이자, 작품에서는 관객의 능동적 역할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불편하고 긴장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타자와의 적절한 거리 찾기는 조화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위한 실험이라기보다 오히려 거리 설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불안정함을 드러내기 위한 실험에 가깝다. <스몰 토크 (Small Talk)>(2022) 프로젝트에서 작가가

참여자들과의 대화 주제를 드로잉하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일종의 타자와의 거리 설정이다. 여기서 이러한 대화의 한계, 즉 적절하다고 믿어지는 거리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의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거리 설정은 관계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작가는 왜 계속해서 타자의 현전을 통해 분열된 주체와 불완전한 관계를 확인하려 하는 것일까?

최근 작업 <흐름\_아바타와 함께 걷기>(2025)에서 작가는 관객의 이미지를 데이터로 변환해 작품 안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해냈다. 여기에서도 관객이 카메라 앞에 설 때까지는 능동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지만, 데이터로 변환된 이후의 이미지들은 관객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비슷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군중 속으로 편입된다. 즉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 관객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온전한 주체로서 역할하지 않고 데이터 조각으로 축소된 그들은 오히려 익명의 타자들과 함께하게 된다. 나는 불편하고 불완전한 관계를 끊임 없이 실험하는 작가의 의도가 이 “함께 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공동체 개념으로 작동하지 않는, 무위의 공동체를 제시했던 장-뤽 낭시(Jean-Luc Nanc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관계 맺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한다.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기 위해 소통과 타협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동일시와 타협에 대한 환상을 깨고 그저 더불어 존재하는 관계가 더 나은(배제가 덜 일어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혜의 작업 앞에 선 사람들은 작업 속 타자들과 동일시되거나 상호작용하기를 거절당함으로써 관계 맺기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불완전한 존재를 확인하고 불편함과 긴장이 연속되는 그 만남 안에서 관계를 생각한다. 작가가 실험하는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함께 있음을 통해 관계를 해체하고 또 다시 거리 측정을 시도하며 때로는 뜻밖의 위로와 위안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_ 마에니, 독립 큐레이터

## Being-With

Jihye Kim's work engages i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artist, the artwork, and the audience. However, the relationships her work generates are not the ones idealized by relational aesthetics—those that begin with hospitality and lead to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Instead, they unfold in more complex ways.

Installations such as *People Who Stare* (2022) and *Proper Distance* (2022) use sensors to expose the discomfort of being watched by the audience, while *He Turned His Head and Glanced at Me* (2022) features figures on screen who, rather than meeting the audience's gaze, only glance at them sideways. Her long-standing practice of drawing anonymous crowds continues in recent video installation works like *Stream* (2024) and *Stream\_Walk with Avatar* (2025), where the audience is casually placed within a sea of faceless others. Confronted with these works, audiences experience not the conversation and connection often expected in relational art, but instead a failure of communication and relationality. In doing so, they are positioned as anxious, incomplete subjects—both observed and ignored—prompted to reconsider what it means to be in relation.

It is not only the audience who is cast adrift among others; the artist herself also exists within this space, continually negotiating her presence as both observer and observed. In her early drawings and in *Stream* (2024), Kim spent extended periods documenting people in public spaces such as plazas, train stations, and shopping malls—sites where anonymous crowds could be observed. She consistently maintains a deliberate distance from her subjects, trea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as a crucial factor for both forming relationships and limiting the audience's agency within the work. Yet, rather than an attempt to establish harmonious communal relations, her search for an appropriate distance from others reveals the difficulty of setting such boundaries and the instability inherent in relationships themselves. In *Small Talk* (2022), a project where the artist constrained conversations with participants to specific drawn topics, she enacted another form of relational distancing. But could these limits to conversation—these so-called "proper distances"—really serve to foster connections and meaningful interaction? Or are they, in fact, designed to make us confront the incompleteness and

limitations of relationships? If so, why does Kim persist in using the presence of the Other to explore fractured subjectivities and unstable relations?

In her latest work, *Stream\_Walk with Avatar* (2025), Kim introduces a new approach by converting the audience's image into data and integrating it into the screen. The audience must actively choose to step in front of the camera, but once transformed into data, their images no longer follow their own actions; instead, they dissolve into a mass of similar figures. In this process, the audience does not function as autonomous agents completing the work, nor do they remain whole as subjects. Instead, they become fragmented data-pieces, merging with anonymous others. I believe that the artist's ongoing experiment with unsettling and incomplete relationships ultimately lies in this notion of "being with."

Philosopher Jean-Luc Nancy, who proposed the idea of the inoperative community, argued that relationships should not be defined by shared goals or mutual agreements, but rather by the value of "Being(-)With" itself. Community, in his view, is not formed through identification or negotiation but emerges from the act of simply existing alongside one another, in a way that resists exclusion. Those who stand before Kim's works may feel that they have faile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having been denied interaction or identification with the figures within. Yet, through this experience, they are made to recognize their own fragmented existence and to contemplate relationships within the discomfort and tension of these encounters. Perhaps the "proper distance" Kim experiments with is not about achieving resolution in relationships, but about dismantling and re-measuring them through the act of being with—offering, at times, an unexpected sense of solace and reassurance.

— Yeni Ma, Independent Curator